

새사람 2 : 양심

새사람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양심에 대해 공부를 해보십시오.

로마서 2 : 14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로마서 2 : 15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심의 역할>

양심은 하나님의 율법을 넘어가려는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경고등과 비슷합니다.

양심은 이렇게 부정적인 면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양심을 따라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심은 우리의 경험 속에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고, 적용하는데 주의가 요합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창조시부터 사람의 마음 속에 양심을 주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을 때에는 양심이 율법을 사용하여 고소하고 송사함으로 죄(罪)를 지은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담은 선악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1. 창조시의 예 ;

아담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는가? 아담이 창조시 선악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가? 예 대한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예'라고 대답합니다. 선악의 안내자로서의 양심은 율법과 함께 작동하는데, 그것은 선악의 기준이 되는 율법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창조시 있었던 율법은 창세기 2:15-17 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 : 15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창세기 2 : 16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창세기 2 : 17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은 창조시에 하나님으로 부터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인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지식을 창조될 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후예인 지구상의 모든 인간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의해 양심의 도움으로 벌써 죄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담이 선악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혹자는 아담은 죄없이 태어났으므로 선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다고 하며, Greham Machen 같은 사람은 말하길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담은 선을 excise 하는 가운데 자동적으로 악에 대한 지식도 갖게 되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5 : 12 에서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 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말미암는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로마서 5 : 12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 왔다고 하는 말은, 타락 이전에 죄가 이 세상에 아직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담이 창조될 때 천사의 선탈락(pre-fallen)으로 에덴에는 벌써 죄가 있었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천사의 선탈락(pre-fallen)으로 죄는 객관적으로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있는 것은 인식되어짐으로(to be is to cognize), 아담은 죄를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아담이 죄에 순종하자 죄는 아담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말한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자의 종이되는 줄 아지 못하느뇨?하고 물었다.) 그러므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말은, 죄가 아담과 이세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말이 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되었다는 말은 **아담과 온 세상이 죄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는 객관적으로 존재했고 또한 인식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죄없이 창조된 아담이라 할지라도 선악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를 인식하고 계신 것을 보아서도 명백합니다. 또 우리 같은 타락한 인간도 죄의 지식은 가지고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곧 죄를 짓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담도 죄가 없이 창조되어, 아직 죄가 아담의 인격 안에 죄가 내재하지 않았어도 죄에 대한 인식은 있었습니다.

타락하기 전의 아담은 타락한 인간들과는 다른 차원에서 선악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경험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서로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아도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그의 인격안에서 그를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아담이 그의 통일된 인격안에서 죄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벌거벗음을 가리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2. 그러면 창 3:22 에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하나가 되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창세기 3 : 22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하나가 되었다는 말은 아담의 의식에 나타난 현저한 변화를 말합니다.

죄가 객관 세계에 존재만할 때에는 죄에 대한 지식은 체험적 지식이 될 수 없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체험하고 난 후는 죄에 대한 지식은 아주 생생하고 날카롭게 그의 내면속에서 인식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인식은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하나가 되었다는 말은 아담의 윤리 의식 세계에 일어난 현저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도 죄에 대한 지식을 체험적으로 갖고 계시다는 말은 물론 아니다)*

행위와 판단의 감시자인 양심은 죄를 지었을 경우 하나님의 정죄를 전달합니다. 이것은 그가 죄를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이 죄의식은 마음에 새겨진 율법과 양심의 고소로부터 옵니다. 바울이 말한 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로마서 2 : 15)’ 입니다.

이것은 곧바로 하나님의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납니다.

아담은 죄를 짓고 난후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고, 정죄받을 것을 의식해 두려워 하였습니다.

창세기 3:6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3:7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창세기 3:8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낫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창세기 3:9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10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하는 것은, 행위와 판단의 감시자로서 양심이 하나님의 정죄를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한후 죄가 함께 그의 인격 안에 거하는 가운데 양심이 더욱 날카롭게 활동했습니다.

또 카인은 죄를 짓고 난후 자신의 행위를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이까?’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였습니다.

창세기 4:9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을 시도했다는 것은, 즉 행위와 판단의 감시자로서 양심이 하나님의 정죄를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3. 양심의 주인은 양심을 주신 하나님이 시다 :

양심은 창조시 부터 행위와 판단의 감시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양심의 경고를 넘어간 경우 그 잘못에 대해 하나님이 정죄를 하십니다. 인간의 양심이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4:3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고린도전서 4:4 내가 자책할 아무 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1 Corinthians 4:4 (NIV)

⁴My conscience is clear, but that does not make me innocent. It is the Lord who judges me.

이 구절에서 내가 자책할 아무 것도 깨닫지 못하나 한 말은, My conscience is clear 로써, 내 양심이 꺼리낌이 없다 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내 양심이 나를 깨끗하다 증거할지라도, 그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고, 나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입니다. 내

양심이 아무리 꺼리낌이 없다 증거하여도 그것이 의의 척도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양심이 구원의 수단이 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4. 양심은 완전한 것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8 : 6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고린도전서 8 : 7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고로 **그들의
양심이 악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고린도전서 8 : 8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족함이 없으리라

이 구절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 고린도 교인들이 질문한 것에 대한 바울 사도의 답변입니다. 이교도였던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고 난 후,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있는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 고린도는 우상 숭배가 온도시에
성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 - 여기서는 약한 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 힘없고 가난한
약한 자들은 우상의 제물과 연계되는 것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음식은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먹으라고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하고 먹으면 음식은 음식일 뿐 아무 것도 아닌데,
이교도로 있었을 생각과 풍습이 남아 있는 힘없고 가난한 약한 자들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음으로
그들의 양심이 악하여지고 더러워진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8 : 9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8 : 10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고린도전서 8 : 11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고린도전서 8 : 12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8 : 13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이 구절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에 대한 지식과 믿음의 자유를 가진 **강한 양심의 사람**이, 음식이 우상의 제물인 줄 아는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 앞에서, 마음대로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면, 그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양심의 자유가 오히려 남으로 죄를 짓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럴 경우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음으로 형제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겠다는말입니다.

고린도전서 8 : 12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8 : 13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이 구절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내 양심에는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약한 양심을 가진 형제에게 죄를 짓도록 하는 것이면 , 강한 양심이 오히려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최후 판단의 기준은 양심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최후 판단의 기준은 율법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말이 됩니다. 양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도록 도와 주지만, 양심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최후의 기준은 아니라는 것,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음 구절은 양심에 자유를 가진 자의 행동 선택의 지침을 보여줍니다.

5. 양심의 자유를 가진 자의 행동 선택의 지침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인해 양심의 자유를 얻은 사람이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공부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10 장에서 이어서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0 : 23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고린도전서 10 : 24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고린도전서 10 : 25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고린도전서 10 : 26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0 : 27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 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고린도전서 10 : 28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고린도전서 10 : 29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고린도전서 10 : 30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 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고린도전서 10 : 31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 : 32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고린도전서 10 : 33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 구절은 어떤 사람이 양심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의 선택이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으로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만약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약한자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경우로 작동했다고 하면, 그것은 사랑으로 행치 않은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양심은 그 자체로서 완전한 것이 아니고 사랑과 함께 역사할 때 완전한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교도였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금방 양심이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또 양심이

꺼리낌에 없는 행동이라고 그것이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양심이 깨끗하다 증거하여도

그것이 하나님께 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심은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이 아니므로 교육에 의해

성장해갑니다. 말씀과 믿음으로 양심의 자유를 느끼는 것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양심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에

의해 자라야 할 것을 보여 줍니다. 피조물에게 속한 것으로서의 양심은 타락하기 전이나 후이나 그

자체로서 완전한 것일 수가 없습니다. 양심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고, 행위와 판단의 척도로 주어진 Moral

make-up 입니다. 그런데 세대 주의에서는 아담시대에는 양심이 구원의 기준으로 제시되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런 주장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인해 양심의 자유를 얻은 사람은 이 자유를 약한 자를 배려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 사랑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느 대형교회의 목회자가 스캔дал로 교회를 사임하면서 몇 십억을 전별금으로 받고, 그것도 모자라 근방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면서, 불신자도 하지 않는 몰염치한 행위를 하는 것을 봅니다. 이 목사는 자기 양심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고 이런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목회자는 그런 스캔달이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그런 소문이 퍼진 것에 대해서 조차도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형제에게 거침이 될까봐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사도 바울의 이고백을 깊이 깊이 이 목사는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6. 예수님의 피로써 성령을 통하여 더러워진 양심이 깨끗해 진다.

타락으로 인하여 더러워진 인간의 양심은 믿음에 의해 깨끗해집니다. 바울은 디도서 1 : 15 에서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 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하였습니다.

디도서 1 : 15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 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율법의 희생 제사는 마음으로 지은 죄나 행위로 옮겨지지 않은 죄에 대하여는 어떻게 하라는 명령이 없기 때문에, 마음으로 지은 죄나 행위로 옮겨지지 않은 죄에 대하여는 정결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9:9 에서는 “**짐승의 피로써 드리는 제사와 예물은 섬기는 자의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다.**” 는 말로 표현하였습니다.

히브리서 9 : 9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Which was a figure for the time then present, in which were offered both gifts and sacrifices, that could not make him that did the service perfect, as pertaining to **the conscience;**

그 심상으로 깨끗케 할 수 없다는 말은 양심을 깨끗케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행위의 법이기 때문에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 히브리서 10 : 1 은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0 : 1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For the law having a shadow of good things to come, and not the very image of the things, can never with those sacrifices which they offered year by year continually make the comers thereunto perfect.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를 ‘저는 완전한 구원을 줄 수 없느니라’ 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9 : 14 은 말하길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 오셔서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릴 때 양심이 살아 일어나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 : 14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How much more shall the blood of Christ, who through the eternal Spirit offered himself without spot to God, purge your conscience from dead works to serve the living God?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더러워진 양심은 깨끗하게 되고,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심의 작용으로 인하여 율법의 부족한 부분은 보충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전옛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하므로 폐하여 졌다(히브리서 7 : 18)” 말하고, “이에 더 좋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 고 합니다.

히브리서 7 : 18 전옛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하므로 폐하고
히브리서 7 : 19 (율법은 아무 것도 온전케 못할지라)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결론>

양심은 구원의 수단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고 행위의 안내자로서 존재합니다. 양심의 재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교도였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금방 양심이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양심이 꺼리낌에 없는 행동이라고 그것이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양심이 깨끗하다 증거하여도 그것이 하나님께 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심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고, 행위와 판단의 척도로 주어진 Moral make-up 입니다. . 말씀과 믿음으로 양심의 자유를 느끼는 것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에 의해 자라야

합니다. 양심은 그자체가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새사람으로 살 때 말씀과 믿음에 의해 자유의 영역이 넓어집니다.